

여대생의 성,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의 차이*

임은미(任銀美)**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성,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 7개 대학에서 여학생 617명, 남학생 589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상담 욕구조사 설문지>, <진로결정수준 검사>와 성, 학년, 전공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이 선호하는 진로상담의 내용은 자기이해, 구직행동,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적응 방법, 의사결정, 직업관 및 윤리의식의 순이었다. 여대생이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은 실습,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관련 강의 듣기,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 심리검사 및 해석, 오프라인으로 정보 찾기, 취업박람회, 동아리모임의 순이었다. 여대생은 남학생보다 자기이해 및 구직행동, 심리검사 및 해석, 오프라인으로 정보 찾기에 대하여는 높은 욕구를 표현한 반면, 집단상담에 대하여는 그 효과를 낮게 지각하였다. 1학년 여대생은 3학년보다 동아리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고, 관련 강의 듣기를 비효과적으로 지각하였다. 인문사회계열 여대생은 심리검사 및 해석의 효과를 사범계열 여대생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사회계열 여대생은 예체능계열 여대생보다 박람회의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다. 진로결정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심리검사와 박람회에 대한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다.

■ 주요어 : 여대생,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지원산업 연구비 지원(2004-B00205)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전주대학교 상담학전공 교수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성 인력의 진로발달을 증진해야 할 강한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대한민국정부, 2001)는 국가적 필요성이다. 둘째는 한 가정의 가장이 평생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가계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적 필요성이다. 셋째는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일할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진데다 자녀수와 가사부담의 급격한 감소로 여성 자신이 일을 통한 의미를 가정 밖에서 추구하게 되었다는 개인적 필요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독자적인 진로를 설계하거나 직업진입, 승진 기회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취업난 시대인 요즘에는 여성 인력들의 직업진입조차도 매우 어려워서 2004년 2월의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는 모두 14만 2천명으로서 여성 실업률 5.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 위기 한파의 영향이 남아 있던 지난 2000년 2월의 6.1% 이래 최고 기록이며, 대졸 이상 남성 실업률 3.3%의 1.75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조선일보 2004. 3.22). 또한 여성은 임시직 취업자 비율이 높고 근무지속기간이 짧아서 여성인력과 남성인력의 임금차이도 크다. 일과 가정의 양립(work-family)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제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기업문화 역시 가정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민무숙, 2003). 직업에의 진입과 유지에 여성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진입과 경력개발 모두에서 여성은 열악한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직업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위치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대졸 여성의 진로개발을 위한 작업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졸업생의 취업률 증대가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현실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뿐만 아니라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기관들에서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대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할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내외 대학들은 기존의 학생상담 센터 이외에도 여대생 캐리어 개발센터 등 여대생들의 진로의식 제고와 직업진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한 기관을 대학 내에 설립할 뿐 아니라 <여성과 진로>를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진로서비스센터의 주요 임무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Hammond, 2001; 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4).

그러나 여성들의 진로개발 상태의 실제적인 변화는 인식 수준의 속도보다는 더디게 일어

나고 있다. 진로준비에 있어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은 취업준비를 늦게 시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취약하다(민무숙, 허현란, 김형만, 2002).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과 남성의 진로발달상의 차이는 여성들이 낮은 진로자기효능감(Hackett & Betz, 1981), 가정과 진로 간의 역할 갈등 및 이로 인한 진로 정체감의 혼란(Archer, 1985), 다중역할 현실성 지각에서의 어려움(Weitzman, 1994) 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en(2005)의 최근 연구에서도, 대만의 경우 유능한 대졸 여성들이 사무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들은 자기실현을 향한 높은 진로포부를 갖고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지루하고 분주한 일에 주로 투입됨으로써 심리적인 부적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발달을 이루어 가는데 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이 동서양 여러 문화권의 공통적 현상일 수 있음을 반영한다.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기구들 또한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데,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여대생의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진로상담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고(Archer, 1985; Austin, 1984; Fitzgerald & Betz, 1983), 여대생의 진로발달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김계현, 손은령, 2002; 김영숙, 이현림, 박혜경, 1999; 이은경, 1998; 양은주, 한종철, 1999), 진로지도의 현장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고취시키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과 운영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은 크게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동일과 강혜영(2002)의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윤정, 송미령, 김민희, 민경환(2005)과 Griff(1987)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내용별로 정리하면서, 구직활동 지원 부분에 '워크샷'이라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Brown(2003)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것, 직업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 올바른 직업관 및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구직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리고 직업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은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인터넷 및 오프라인 상에서 정보 찾기, 강의듣기, 동아리 모임, 구직행동 실습, 취업박람회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 다양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들의 효과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운영방법이 보다 우수한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참가자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각 운영방법과 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2001; 조지영, 천성문, 1999). 이러한 필요성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더욱 커진다. 대학 내의 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 집단의 전 구성원을 매 회기마다 동기화 시키거나 깊이 있는 탐색과 의사결정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개별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적, 심리적 특징에 따라 특정 내용과 운영방법으로 진행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담자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이론상으로는 지적되어 왔지만(김봉환, 1997; 김병석, 김현주, 1997; Heppner & Hendricks, 1995; Savickas, 1989), 프로그램의 실제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김봉환 등(2001)의 연구는 참가자의 학령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고, 임은미, 임찬오(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변인일 수 있다. 진로 결정 수준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얼마나 결정을 하였는가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Heppner와 Hendricks(1995)는 내담자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진로상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국내에서도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차별적 진로상담이 제안된 바 있다(조지영, 천성문, 1999).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중 여대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의 특성에 따라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제공의 현장에서 이질집단으로 이루어진 대상에게 동일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참가자 구성에 있어 성,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추론들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 학년, 계열,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여대생의 성, 학년, 계열,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차이가 밝혀진다면, 대학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가자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대생 중에서도 지방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지방대 여대생의 경우 진로선택과 직장진입의 과정에서 '여성'과 '지방대'라는 두 가지 취약성을 함께

지닌 집단이다. 이들의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얻는 것은 여대생 개인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일일 뿐 아니라 대학으로서는 지방대 여대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진로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첫째, 여대생은 어떠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가장 필요하다고 지각하는가 ?
- 둘째, 여대생은 어떠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각하는가 ?
- 셋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여대생의 필요성 지각은 남학생과의 비교,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별로 차이가 있는가 ?
- 넷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에 대한 여대생의 효과성 평가는 남학생과의 비교,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별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여자 대학생 617명과 남자 대학생 589명으로 총 1206명이었다. 이는 회수된 총 1260부의 설문지 중 성이나 학년 중 하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1/3이상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5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 4년제 10개 대학의 강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 실시를 부탁하였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8명의 강사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계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전공을 적도록 한 후, 학생들이 적어 낸 전공 명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① 인문계열 : 국문학, 러시아어, 번역, 불문학, 스페인어, 신학, 심리철학, 역사문화, 영미문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 ② 사회계열 : 경제정보, 경찰행정, 관광이벤트, 관광정보, 광고홍보, 국제경제, 금융보험,

<표 1> 연구대상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분포

대상구분	여	남	계	
학년	1학년	165 (26.7%)	182 (30.9%)	347 (28.8%)
	2학년	142 (23.0%)	158 (26.8%)	300 (24.9%)
	3학년	203 (32.9%)	173 (29.4%)	376 (31.2%)
	4학년	107 (17.3%)	76 (12.9%)	183 (13.7%)
	계	617(100.0%)	589(100.0%)	1206(100.0%)
계열	인문계열	57 (9.4%)	27 (4.7)	84 (7.1%)
	사회계열	285 (47.2%)	205 (35.5%)	490 (41.5%)
	이공계열	120 (19.9%)	264 (45.7%)	384 (32.5%)
	사범계열	101 (16.7%)	46 (8.0%)	147 (12.4%)
	예체능계열	41 (6.8%)	36 (6.2%)	77 (6.5%)
	계	604(100.0%)	578(100.0%)	1182(100.0%)

급식경영, 기술경영, 물류유통, 법학, 부동산, 사회복지, 산업경영, 상담심리, 신문방송, 심리, 언론심리, 외식경영, 인력경영, 컨벤션경영, 통역, 행정학, 호텔, 호텔경영, 회계학

- ③ 이-공계열 : 건축공학, 고분자공학, 기계정보, 도시공학, 도시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미생물학, 산업공학, 생명유전 공학, 생명의약, 생물의약, 생산시스템, 세라믹공학, 신소재, 신소재공학, 응용화학, 전기, 전기전자, 전산수학, 전자상거래, 전통음식,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제어, 조정, 컴퓨터공학, 컴퓨터정보, 토목환경, 해양생명, 환경시스템,
- ④ 예-체능계열 :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 산업미술, 서양화, 성악, 영상예술, 음악, 의류패션, 전통패션, 체육, 태권도, 피아노
- ⑤ 사범계열 : 가정교육, 교육학,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2. 연구도구

1) 진로상담육구조사

<대학생의 진로상담 육구조사 설문지>는 기존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들과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내용차원 설문지 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연구들을 참고하였고(김동일, 강혜영, 2002; 김봉환, 남상인, 김동일, 임은미, 유성경, 2001; 민무숙, 2003; 양희산, 2001; 임은미, 임찬오, 2003; Brown, 2003; Griff, 1987; Hammond, 2001), 방법차원 설문지 구성을 위해서는 Browns(2003)의 제안과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로상담 프

로그래의 방법들을 수집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교육심리 전공 박사 3인과 교육상담 전공 박사 2인의 협의를 거쳐 설문항목을 확정하고 응답방법을 결정하였다. 내용차원의 문항에서는 진로상담의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4점 척도(1=필요없다. 4=매우 필요하다)로 평가한다. 내용차원 문항의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 내용차원 문항

다음의 각 진로 상담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				
내용	필요 없다	별로 필요치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자기이해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이해)	1	2	3	4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세계의 구조 및 관심직업에 대한 정보탐색)	1	2	3	4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 배우기)	1	2	3	4
올바른 직업관 및 윤리의식 고취	1	2	3	4
구직행동 익히기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	1	2	3	4
직업적응 방법 (업무적응 및 직장내 대인관계 적응)	1	2	3	4
기타(쓰시오):				

방법차원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난 진로상담의 내용들을 <표 3>의 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개의 세부 내용들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 어떤 방법적 접근이 효과적인지를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 오프라인으로 정보 찾기, 관련 강의 듣기, 동아리 모임, 취업박람회 등의 각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지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4=매우 효과적이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21개 세부내용 항목 중 의사결정 방법 습득, 진로계획 세우기,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윤리 수립,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경력관리 방법 습득 등에 대하여는 실습이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효과평가 하위항목으로 '실습'도 포함하였다.

21개의 세부내용 각각에 대하여 아홉 가지 방법에 대한 효과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아홉 개의 방법에 대한 21개 세부항목의 효과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평균치를 산출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점수로 사용하였다.

<표 3>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 방법차원 문항

20.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배우는데 있어 다음의 각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방법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 이다	매우 효과적 이다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1	2	3	4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1	2	3	4
심리검사 및 해석		1	2	3	4
정보 찾기	인터넷으로 찾기	1	2	3	4
	오프라인에서 찾기 (책, 신문, 잡지 등)	1	2	3	4
관련 강의듣기		1	2	3	4
동아리 모임		1	2	3	4
취업박람회		1	2	3	4
실습		1	2	3	4
기타(쓰시오):					

※ 방법차원 문항에서 효과 평가의 대상이 된 진로상담 21개의 세부 내용
: 흥미이해, 적성이해, 가치관 이해, 성격이해, 현재 수준 이해, 직업의 종류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경향과 전망에 대한 이해,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찾는 방법 습득,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찾는 방법의 습득, 구체적인 진학정보를 찾는 방법의 습득, 구체적인 자격정보를 찾는 방법의 습득, 의사결정 유형 이해, 적합한 진로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법, 나에게 맞는 직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윤리 수립의 방법,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한 방법, 이력서 작성 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배우기 위해, 경력관리방법을 배우기

2) 진로결정수준 검사

진로결정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는 Osipow, Carney, & Barak(1976)이 개발하여 고향자(1992), 김봉환(1997)등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 하였으며,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예: 김지연, 황매향, 2004; 양은주, 한종철, 1999; 조지영, 천성문, 1999).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를 분석하였다. 척도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신뢰도는 $\alpha=.90$ 이었고, 국내 연구들 중에는 고향자(1992)에서 $\alpha=.86$, 양은주와 한종철(1999)에서 $\alpha=.88$, 조지영과 천성문(1999)에서 $\alpha=.86$, 김지연, 황매향(2004)에서 $\alpha=.75$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1,155명의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측정한 신뢰도는 $\alpha=.89$ 였다.

자료 분석시에는 사례수를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진로결정수준검사의 총점을 '낮음, 중간, 높음'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간 사례수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되, 동점은 같은 집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집단에는 195명(평균 27.05, 표준편차 3.62), 중간인 집단에는 209명(평균 37.90, 표준편차 3.17), 높은 집단에는 187명(평균 49.87, 표준편차 4.40)이 할당되었다.

3. 연구절차

연구주제를 결정한 후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입수하고, <대학생의 진로상담 욕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 제작은 대학의 학생생활 연구소 및 커리어 센터에서 재학생을 위해 주로 제공하고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문헌을 참고하여, 내용차원과 방법차원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 심리전공 박사 3인과 교육 상담전공 박사 2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내용과 응답방법을 수정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를 사전에 협의된 강사들에게 2004년 2학기과 2005년 1학기에 우편으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여대생의 특성을 남학생과 대비하여 이해하기 위해 남학생도 대응집단으로 표집 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0.0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분포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이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밝히기 위하여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대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욕구를 남학생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학년별·계열별·진로결정수준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지각

<표 4>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필요성 평가

진로상담의 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자기이해	618	1	4	3.43	.60
구직행동	617	1	4	3.40	.63
직업세계의 이해	616	1	4	3.38	.59
직업적응 방법	616	1	4	3.32	.65
의사결정	616	1	4	3.22	.63
직업관 및 윤리의식	616	1	4	3.09	.70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조사대상 여대생들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내용 모두에 대하여 '3점(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함으로써,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 전반에 대하여 높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여대생들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균치에 따라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부터 나열하면 자기이해, 구직행동,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적응방법, 의사결정, 직업관 및 윤리의식의 순이었다.

2.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성 지각

<표 5>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아홉가지 방법 중 조사대상 여대생들이 '3점(효과적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방법은 실습, 개인상담, 집단상담의 세 가지였다.

<표 5>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 평가

진로상담의 방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실습	602	1.25	4.00	3.17	.55
개인상담	598	1.00	4.00	3.14	.44
집단상담	593	1.00	4.00	3.09	.44
강의	580	1.00	3.95	2.85	.42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	566	1.00	3.81	2.73	.38
심리검사	566	1.00	4.00	2.69	.48
오프라인으로 정보 찾기	579	1.00	3.71	2.67	.40
취업 박람회	539	1.10	4.00	2.63	.51
동아리	586	1.00	3.95	2.46	.48

여대생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각하는 진로상담의 방법을 평균치에 따라 나열하면, 실습, 개인상담, 집단상담, 강의, 인터넷으로 직업정보찾기,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오프라인으로 직업정보찾기, 박람회 참가, 동아리 활동의 순으로써, 실습(3.17)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동아리 활동(2.46)을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집단간 차이

<표 6> 남학생과의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이해	여	617	3.43	.59	1.93*
	남	588	3.36	.67	
직업이해	여	616	3.38	.59	1.71
	남	588	3.32	.62	
의사결정	여	616	3.22	.63	-.47
	남	587	3.24	.68	
직업관	여	616	3.09	.68	.67
	남	587	3.06	.77	
구직행동	여	617	3.40	.62	3.06**
	남	588	3.28	.68	
직업적응	여	616	3.32	.64	.64
	남	586	3.29	.69	

* $p < .05$, ** $p < .01$

여대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효과지각이 남학생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자기이해와 구직행동의 영역이었다. 여대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자기이해($p < .05$)를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구직행동 습득($p < .01$)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 제시를 생략하고 <표 7>부터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4. 프로그램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집단 간 차이

<표 7> 남학생과의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개인상담	여	598	3.14	.44	-1.24
	남	565	3.17	.44	
집단상담	여	593	3.09	.44	-2.30*
	남	556	3.15	.43	
심리검사	여	566	2.69	.48	2.57**
	남	526	2.62	.50	
인터넷으로 정보찾기	여	566	2.73	.38	.04
	남	534	2.73	.40	
오프라인으로 정보찾기	여	579	2.67	.40	1.95*
	남	552	2.62	.42	
강의	여	580	2.85	.42	-.02
	남	547	2.84	.45	
동아리	여	586	2.46	.48	-1.58
	남	554	2.51	.54	
취업 박람회	여	539	2.63	.51	-.04
	남	506	2.63	.53	
실습	여	602	3.17	.55	.72
	남	568	3.15	.54	

* $p < .05$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의 효과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단상담, 심리검사, 오프라인으로 정보 찾기 활동이었다. 심리검사에 대하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효과를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p < .05$), 집단 상담($p < .05$)과 오프라인으로 정보찾기 활동($p < .05$)에 대하여는 남학생이 더 효과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들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서 학년차가 의미 있게 나타난 것은 강의($p < .05$)와 동아리 활동($p < .001$)이었다(<표 8>). 동아리 활동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1학년 때 가장 높다가 3학년 때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 대한 효과 평가는 1학년 때 가장 낮다가 3학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학년차이

진로상담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F	Scheffe
개인상담	사례수	159	134	200	105	598	.27	
	평균	3.13	3.15	3.16	3.12	3.14		
	표준편차	.47	.44	.44	.41	.44		
집단상담	사례수	158	132	199	104	593	1.48	
	평균	3.03	3.09	3.13	3.10	3.09		
	표준편차	.44	.48	.44	.41	.44		
심리검사	사례수	152	130	185	99	566	1.66	
	평균	2.75	2.70	2.63	2.72	2.69		
	표준편차	.50	.44	.47	.53	.48		
인터정보	사례수	145	131	192	98	566	.58	
	평균	2.72	2.77	2.72	2.71	2.73		
	표준편차	.39	.37	.36	.42	.38		
오프정보	사례수	150	133	193	103	579	1.62	
	평균	2.68	2.72	2.66	2.61	2.67		
	표준편차	.41	.39	.40	.40	.40		
강의	사례수	151	134	195	100	580	3.15*	3학년 >1학년
	평균	2.76	2.88	2.90	2.84	2.85		
	표준편차	.43	.43	.42	.41	.42		
동아리	사례수	154	135	194	103	586	5.48***	1학년 >3학년
	평균	2.56	2.50	2.36	2.45	2.46		
	표준편차	.47	.50	.49	.43	.48		
박람회	사례수	142	123	182	92	539	2.44	
	평균	2.63	2.72	2.56	2.62	2.63		
	표준편차	.49	.50	.52	.52	.51		
실습	사례수	159	137	201	105	602	.97	
	평균	3.13	3.23	3.15	3.19	3.17		
	표준편차	.55	.52	.55	.57	.55		

* $p<.05$, *** $p<.001$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들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서 계열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심리검사와 박람회였다(<표 9>).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사범계열학생들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1$).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사회계열 학생들이 예체능계열 학생보다 의미있게 높았다($p<.01$).

<표 9>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계열차이

진로상담 방법		인문	사회	이공	사범	예체능	전체	F	Scheffe
개인상담	사례수	56	271	117	100	41	585	1.05	
	평균	3.16	3.16	3.16	3.06	3.13	3.14		
	표준편차	.45	.47	.40	.41	.44	.44		
집단상담	사례수	55	269	117	98	41	580	.07	
	평균	3.07	3.08	3.10	3.11	3.07	3.09		
	표준편차	.44	.47	.41	.37	.51	.44		
심리검사	사례수	56	255	107	100	36	554	4.80**	인문,사회 >사범
	평균	2.76	2.77	2.63	2.57	2.58	2.69		
	표준편차	.48	.49	.45	.50	.40	.49		
인터넷정보	사례수	56	250	109	98	40	553	.90	
	평균	2.74	2.75	2.71	2.75	2.63	2.73		
	표준편차	.36	.40	.39	.37	.31	.38		
오프정보	사례수	54	263	115	97	39	568	.53	
	평균	2.72	2.65	2.69	2.69	2.64	2.67		
	표준편차	.44	.40	.40	.40	.34	.40		
강의	사례수	57	260	115	98	38	568	.69	
	평균	2.85	2.83	2.89	2.87	2.78	2.85		
	표준편차	.36	.46	.38	.44	.40	.42		
동아리	사례수	57	261	117	98	40	573	1.53	
	평균	2.39	2.50	2.45	2.44	2.33	2.46		
	표준편차	.53	.49	.44	.48	.48	.49		
박람회	사례수	53	239	106	94	36	528	3.79**	사회 >예체능
	평균	2.52	2.69	2.66	2.56	2.40	2.62		
	표준편차	.58	.51	.49	.45	.49	.51		
실습	사례수	57	275	117	100	40	589	.77	
	평균	3.14	3.19	3.09	3.20	3.20	3.17		
	표준편차	.56	.55	.55	.57	.53	.55		

** $p < .01$

진로상담 방법 각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조사대상 여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별로 분석하였을 때, 진로결정 수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방법은 심리검사($p < .01$)와 박람회($p < .01$)였다(<표 10>). 심리검사에 대하여는 진로결정 수준이 중간인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박람회에 대하여는 진로결정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0>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진로결정수준별 차이

진로상담방법		낮음	중간	높음	전체	F	Scheffe
개인상담	사례수	190	203	179	572	.59	
	평균	3.12	3.14	3.17	3.14		
	표준편차	.41	.40	.48	.43		
집단상담	사례수	187	201	179	567	.01	
	평균	3.10	3.10	3.10	3.10		
	표준편차	.40	.41	.47	.43		
심리검사	사례수	182	192	167	541	4.67**	중간>낮음
	평균	2.62	2.76	2.70	2.70		
	표준편차	.48	.47	.46	.48		
인터넷정보	사례수	184	194	164	542	.86	
	평균	2.70	2.75	2.72	2.73		
	표준편차	.41	.38	.36	.38		
오프정보	사례수	184	198	174	556	.33	
	평균	2.68	2.68	2.65	2.67		
	표준편차	.42	.39	.39	.40		
강의	사례수	187	198	172	557	.49	
	평균	2.83	2.86	2.87	2.85		
	표준편차	.47	.39	.42	.42		
동아리	사례수	188	200	175	563	.16	
	평균	2.45	2.48	2.46	2.47		
	표준편차	.52	.44	.51	.49		
박람회	사례수	176	181	159	516	3.62*	
	평균	2.55	2.67	2.68	2.63		
	표준편차	.49	.45	.59	.51		

* $p < .05$,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총 617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이해, 구직행동,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순이었다.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법은 실습,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집단 간 차이도 있어서 남학생과 비교할 때 여대생은 구직행동 지원 프

로그램과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심리검사 및 해석 프로그램과 오프라인으로 정보찾기 프로그램을 남학생보다 선호한 반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의 선호도 차이가 뚜렷한 편이었다. 1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3학년보다 선호하는 반면, 3학년 학생들은 강의의 듣기를 1학년 학생보다 선호하였다. 인문사회계열 여대생들은 사범계열 여대생보다 심리검사의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고, 사회계열 학생들은 예체능 계열 학생보다 취업박람회의 효과를 높게 지각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심리검사와 취업박람회를 덜 선호하였다. 3학년들이 강의의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또래들로부터 얻는 정보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정보를 얻어서 취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각 대학에서 진로지도를 실시할 때 전공과 현재의 직업세계를 직결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안들이 전공별로 세분화되어 마련되면, 강의에 대한 3학년의 높은 욕구와 맞물려 성공적인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ampson et al.(2004)이 제시하고,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 관련 정규 교과목과 대학교 진로서비스센터에서의 진로정보탐색과 산업체로의 구직행동 지원간 연계적 모델 등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진로상담 실제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자기이해 프로그램, 심리검사, 오프라인으로 정보찾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열 학생들에게는 심리검사와 취업박람회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높은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사범계열 학생들에게는 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며,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박람회 프로그램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유사 연구인 공윤정 외(2005)의 연구에서 14가지 진로서비스를 항목별로 정리한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내용과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집대상을 여대생에게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공윤정 외(2005)의 연구에서는 개별 서비스 항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심층적으로 시도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러 대학들과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상담의 내용과 방법 간의 구별, 그리고 내용유목과 방법유목간 배타성과 포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공윤정 외(2005)에서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돕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진로서비스였음을 밝혔다. 이 결과를 본 연구와 접목시켜 보면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대상이 인문, 사회계열 여대생들이나 진로결정 수준이 중간 이상인 여대생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유사연구로서 이제경과 김동일(2004)이 대학교 3학년과 4학년, 졸업 후 취업직 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집중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정보의 소스로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취업이 임박할수록 보수와 회사명성, 직업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달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는 실습, 개인상담, 집단상담보다 효과가 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두 연구 간의 연구대상과 조사항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이제경과 김동일(200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지도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는 여러 가지 활동의 부분으로서 위치를 가지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으려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은 취업이 임박할수록 보수, 명성, 안정성이므로 취업에 임박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신뢰로운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과 인터넷에 탑재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에 임박한 학생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 찾아보지 못하지만 중요한 직업정보인 직무내용이나 생활양식, 미래전망 등에 대하여는 취업 준비에 쫓기기 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방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여대생 진로지도의 발전 및 취업지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었다는 데 있다.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다루어 진행된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활용하면, 지방대학의 진로서비스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기존의 프로그램 중 어떤 부분들을 지방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야 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진로상담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뚜렷한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진로상담의 내용이나 방법이 동등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얻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연구대상인 지방대 여대생들이 '진로'와 '진로발달'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진로 서비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자료이기도 하며, 그렇다면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당초의 목적대로 여대생의 성, 학년, 계열,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데는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술한 바대로 진로상담의 내용 및 운영방법에 따르는 성, 학년, 계열, 진로결정수준별 차이를 부분적으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진로상담 현장에서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요소를 가감하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진로상담의 현장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 이상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표집과정에서의 편포정도이다. 전국의 지방대학 중 7개 대학의 학생들만 표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의 여대생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05) 및 학과전공분류체계(한국교육개발원, 2004)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제 여대생을 대표하기에는 의약계열 여대생(전체 여대생의 4.80%)이 제외되었다. 또한 사회계열의 일부학과들이 '성황'을 이루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면도 있지만, 사회계열 여대생이 과다 표집된 데 비하여 인문계열 여대생과 예체능계열 여대생은 과소 표집된 경향도 있다.

둘째, 연구를 위해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유목을 유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한 유목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하위 유목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해석이 애매해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기이해 유목에는 흥미탐색, 적성탐색, 가치관탐색, 성격의 이해, 현재의 기능수준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을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에의 참가 유무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발함으로써 연구 대상들이 본 설문지에서 제시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얼마만큼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설문을 구성할 때 진로상담의 내용 항목에 대하여 하위요소들을 제시하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대학생의 진로상담 욕구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설문지는 진로선택이론에서 제시한 바 진로상담의 핵심요소 세 가지인 자기이해, 직업탐색, 의사결정을 아우르면서, 현재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을 추출하였고, 교육심리 전공 박사 3인과 교육상담 전공 박사 2인과의 논의를 거치는 등 제작 과정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설문지 구성내용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별도의 경험연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설문지에서 측정된 내용이 여대생의 진로상담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대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차별적 진로상담 프로그램 구안에 참고하기 위한 보다 좋은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여대생들이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한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와 연구수행 이전에 인구 통계적 비율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유목을 체계화하되 특정 유목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공윤정, 송미령, 김민희, 민경환(2005).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의 진로 서비스 요구조사. 상담학연구, 6(2), 435-447.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통계연보.
- 김계현,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연구, 14(1), 121-142.
- 김동일, 강혜영(2002).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분석 : 진로탐색 및 취업면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3(1), 139-156.
- 김병석, 김현주(1997). 진로상담 모형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봉환, 남상인, 김동일, 임은미, 유성경(2001). CAP: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앙고용정보원.
- 김영숙, 이현림, 박혜경(1999). 여성진로상담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19.
- 대한민국정부(2001). 국가인적개발 기본계획.
- 김지연, 황매향(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637-646.
- 문선모(1998). 진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직업의식. 진주시청소년상담실.
- 민무숙(2003). 대학교 여대생을 위한 진로교육 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71-100.
- 민무숙, 허현란, 김형만(2002). 여대생의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양은주, 한종철(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79-101.
- 양희산(2001). 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진로교육연구, 14(2), 67-77.
- 이은경(1998). 여성의 진로장애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79-97.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107-123.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257-280.
- 임은미, 임찬오(2003). 국내 집단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11(2), 3-11.
- 조선일보(2004). 3월 22일, 사회.
- 조지영, 천성문(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집단상담의 효과 및 과정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01-136.
- 한국교육개발원(2004). 2004년도 학과분류체계.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jcgi-bin/publ/publ_yrbk_frme.jsp?menuid=1
- Archer, S. L. (1985). Career and/or family: The identity process for adolescent girls. *Youth and Society*, 16, 289-314.
- Austin, H. S.(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y*, 12, 117-126.
- Brown, D. (2003).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8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Fitzerald, L. F., & Betz, N. E. (1983). Issues in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Vol. 1, pp. 83-144)*. Hillsdale, NJ: Erlbaum.
- Griff, N. (1987). Meeting the career development needs of return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187-19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mmond, M. S. (2001). Career centers and needs assessments: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increase your succes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187-197.
- Heppner, M. J., & Hendricks, F. (1995). A process and outcome study examining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26-437.
- Lien, B. Y. (2005). Career development and the needs of young college-educated females in Taiw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1, 3, 209-223.
- Osipow, S. H., Carney, C.G., & Barak, A.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r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 Sampson, J. P., Reardon, R. C., Peterson, G. W., & Lenz, J. G. (2004). *Career counseling and services*. Brooks/Cole.
- Savickas, M. L. (198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8, 100-134.

Schulz, W. E. (1995). Evaluating Career Counseling Centers: A collaborative approach. ERIC Document ED414517.

Weitzman, L. M. (1994). Multile role re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planning to combine career and family rol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3, 15-25.

* 논문접수 2005년 11월 15일 / 1차 심사 2005년 11월 25일 / 2차 심사 2005년 12월 15일

*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을 전공으로 하여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89~1990), 한국청소년상담원(1993~2001)에서 재직하였고, 현재는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상담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로는 '국내 집단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등이 있다.

* e-mail: tgeunmi@jj.ac.kr

Abstract

The Study of Differential Career Counseling Needs According to Female College Students' Gender, Grade, Major, and Career Decision Level

Lim, Eun-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ing program needs according to gender, grade, major, and career decision level. For this purpose 617 female and 589 male college students were sampled. They performed the questionnaire of <Career decision scale> and <College students' needs for career counseling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students' favorite career counseling program contents were self-understanding, job getting behavior, understanding job world, job adjustment, etc. And female students' favorite career counseling program methods were practice,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listening the relative lectures, etc. Female students liked self-understanding, job getting behavior, psychological testing, informations getting thru off-line more than male students. But liked group counseling program less than male students. First grade female students perceived interaction with colleagues more effective than third grade female students, but listening the relative lectures less effective. The female students in cul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esting higher than the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ducation. The female students in social sciences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career exhibition higher than the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art and gymnastics. The female students with middle-level career decision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esting and career exhibition better than female students with the low-level career decision.

Key words: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career counseling program needs

* Department of Counseling, Jeonju University